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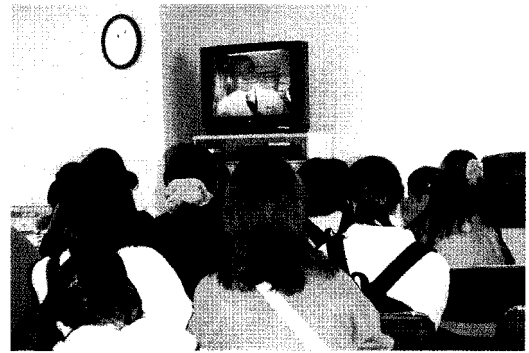
"HIV감염인의 복지와 쉼터의 역할" 심포지엄


 본회는 지난 10월 29일(금)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19층)에서 창립 6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HIV감염인의 복지와 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에이즈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 심포지엄은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광모 본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쉼터운영 (본회 이창우 사무국장)',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쉼터(한국에이즈퇴치연맹 상담실장 박송미)', '외국의 쉼터운영 사례(본회 신남현 주임)', '에이즈환자의 호스피스 활성화 방안(한국호스피스협회장 원주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본회 박양실 부회장과 서울대의대 최강원 교수, 연세대의대 김준명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에서는 본회 정광모 회장의 진행으로 이종구 국립보건원 방역과장, 유미혜 구세군 대한본영 사관학교 교관, 조정혜 해바라기 쉼터 소장, 원주희 한국호스피스협회장, 박송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상담실장, 이창우 본회 사무국장의 열띤 토의가 있었다.

에이즈정보센터에서 중고교생도 교육




 에이즈 감염인/환자, 그 가족 및 일반인을 주대상으로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본회의 에이즈정보센터에서는 그 대상범위를 넓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예방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대광중학교 특별활동 YMCA 반 학생 12명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정보센터 교육실에서 비디오 <에이즈수첩>을 시청하고 에이즈 예방과 치료, 감염인과의 생활 등에 관한 강의를 받았다. 또 10월 30일과 11월 6일(토)에도 아주중학교 30명, 화원중학교 43명의 학생이 에이즈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에이즈예방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소감문에서 "에이즈에 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에이즈 감염인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나 여러 단체들이 감염인들에 대해 노력과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해 청소년에 대한 에이즈예방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부산광역시회 이전 현판식

 본회 부산광역시회의 사무실 이전 현판식이 지난 10월 1일(금)에 있었다.



이날 현판식에는 본회 김준명 운영위원장, 이창우 사무국장과 김수철 부산광역시회장, 조경종 전 국립부산검역소장을 비롯하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과 부산시의사회장 등의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현판식 후에 만찬을 함께 하며 앞으로 부산·경남지역에서 에이즈예방사업을 활발히 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부산광역시회 주소:

부산 해운대구 우1동 761-12 오션타워 504호

전화 : (051)740-5747

팩스 : (051)740-5354

이메일 : cho0joo@hanimail.com

에이즈집단교육 전국에서 200여 회 실시

본회는 보건복지부의 후원 하에 교육을 신청한 전국의 학교·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총 200여 회에 이르는 에이즈집단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에서는 양재고 등 25개 학교 및 단체, 인천·경기지역에서는 인천 육군부대 등 45개 학교 및 단체, 부산·경남지역에서는 부산 호텔롯데 등 17개 학교 및 단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 동부여중 등 17개 학교 및 단체, 광

주·전남지역에서는 영광 해금고 등 14개 학교 및 단체, 전북지역에서는 전주교대 등 32개 학교 및 단체,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서산 동문동민방위 등 40개 학교 및 단체, 충북지역에서는 청주 충북예술고 등 8개 학교 및 단체, 제주지역에서는 제주 아라중 등 2개 학교 및 단체가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에이즈에 대한 예방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에이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건전한 성 윤리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에이즈예방 기둥캠페인, 전단도 배포



본회는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3개월간을 예정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본회 임직원과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홍보팀이 "AIDS 예방이 최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용 조끼를 입고 이동 현수막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지원으로 제작된 리플렛 「가족사랑, 가족건강」 75,000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십시오」 21,000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75,000매 등 171,000매를 나누어준다.

보건복지부 <치매상담 매뉴얼> 발간

보건복지부는 상담요원을 위한 <치매상담 매뉴얼>을 펴냈다.

의학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 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치매노인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확충하고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치매노인 및 가정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펴낸 치매상담 매뉴얼은 각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종사하는 전문요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치매의 원인과 진단, 치매의 치료 등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간호(상담) 요령, 치매 환자의 영양,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 등 치매환자 상담, 간호를 위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경남과 서울에서 보건요원 교육



본회는 감염인을 직접 관리하고 상담하는 보건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회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10월 15일(금) 부산대학교병원 강당에서 부산·경남지역 각 시·구·군 보건소의 에이즈담당 40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관리를 위한 부산·경남지역 보건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공동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부산대 의대 조준제 교수가 “에이즈의 역학 및 세계적 추세”, 동아대 의

대 이혁 교수가 “HIV감염의 증상 및 치료”, 부산대 의대 김영혜 교수가 “에이즈상담의 실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부산 해운대구보건소(이조환), 부산 남구보건소(김호건), 경남 사천시보건소(신명혜), 경남 김해시보건소(김수갑) 등의 에이즈담당요원이 실재로 그들의 감염자 관리 사례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또 두명의 감염인과의 진솔한 대화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본회 서울특별시회에서도 11월 5일(금)에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 강당에서 서울시 보건소 에이즈담당 및 검사요원 42명을 대상으로 <에이즈관리를 위한 보건요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HIV의 최신 치료동향과 효과(아주대 의대 최영화 교수)”, “중독성 물질로 인한 HIV 감염인의 치료(연세대 의대 이필구 교수)”, “HIV감염인의 심리상담(연세대 간호대 장순복 교수)”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HIV감염인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협회소식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수상



김모임(연세대 간호대 교수) 본회 이사는 대한간호협회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여성의 능력을 증명한 공로로 지난 9월 16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대회에서 제1회 김활란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 정책자문위원 위촉



이영혜(차기 한국여자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본회 서울특별시회장은 지난 9월 8일 정치·경제·언론·학계 인사 등 24명과 함께 국무총리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보건대상 수상



김수철(부산 김수철성형외과 원장) 본회 부산광역시회장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지난 10월 15일 대한보건협회에서 시상하는 제13회 보건대상(공로부문)을 수상했다.

경인숙 10,000	김정지 10,000	박효숙 20,000	어길여 1,000,000	전경화 20,000	최중영 10,000
고광춘 10,000	김진현 10,000	서상희 10,000	이미경 20,000	정경애 10,000	최현림 10,000
고복희 10,000	김채영 10,000	서영아 10,000	이상목 10,000	정문호 30,000	최형선 10,000
고옥복 10,000	김태숙 10,000	서은숙 30,000	이선희 50,000	정수홍 30,000	태상호 10,000
권순래 10,000	김필수 10,000	손인숙 10,000	이순례 10,000	정순영 20,000	한동관 100,000
김경라 10,000	김홍자 10,000	손정태 50,000	이승기 10,000	정우균 10,000	한백인 10,000
김기호 10,000	김철순 10,000	손중성 10,000	이승우 10,000	정우욱 10,000	한상무 10,000
김동현 10,000	김희연 10,000	송광자 10,000	이명숙 10,000	정은경 30,000	한연식 10,000
김매자 10,000	나칭환 10,000	신동현 50,000	이영숙 10,000	정임교 10,000	한영란 30,000
김명관 10,000	노순자 10,000	신순천 10,000	이영애 10,000	정주현 20,000	한영욱 20,000
김민화 10,000	노수희 10,000	신영오 100,000	이영은 10,000	정현정 10,000	한중석 10,000
김민자 100,000	노철원 10,000	안윤옥 10,000	이영화 10,000	조욱기 100,000	함유식 20,000
김상인 10,000	류수현 10,000	안은숙 10,000	이윤진 5,000	조재규 10,000	허 목 10,000
김수길 50,000	민영홍 10,000	안종주 30,000	이은주 10,000	조재휘 10,000	허임순 10,000
김애옥 10,000	박동식 10,000	안태성 10,000	이주열 50,000	조정숙 10,000	허정은 10,000
김영녀 10,000	박래은 10,000	여원익 10,000	이필구 20,000	조한익 20,000	홍승문 10,000
김영숙 10,000	박복희 10,000	여주현 10,000	이행자 40,000	조혜숙 10,000	홍정혜 10,000
김영웅 10,000	박선희 10,000	오영애 10,000	이혜옥 20,000	주윤경 10,000	홍택식 10,000
김옥렬 10,000	박숙경 10,000	오태준 5,000	이희란 10,000	주의연 10,000	황혜경 10,000
김우주 10,000	박연호 10,000	원영호 30,000	이희자 10,000	지영희 10,000	우 명 20,000
김유미 50,000	박원주 10,000	원유덕 10,000	임상선 10,000	최강원 80,000	길의료재단 1,000,000
김인구 10,000	박정희 10,000	윤석영 10,000	장순복 300,000	최순호 20,000	대한의사협회 100,000
김인호 10,000	박찬명 10,000	이경신 10,000	장원아 10,000	최순화 20,000	경기대보건소 10,000
김재권 10,000	박창석 10,000	이광호 50,000	전경숙 20,000	최재규 10,000	간호사